

◀기쁜 우리 날들▶ 아버지!당신은 나의 사랑 입니다

석류와 풋감이 애기 주먹을 훌쩍 넘어
 주렁주렁 가을을 맞이하고
 가을을 재촉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굵은 비가 내리면
 풋감으로 끼니를 때우던 어린 날이.....
 아버지 당신이 있어 어린 날의
 내 부끄러움을 이제야 용서를 빌어 봅니다.

동네 한 어귀에서 가위질 소리가 들려오면
 유난히 키가 작았던 어린 내 가슴은 쿵쿵 쿵쿵 요동을 치고
 그 자리엔 옛장수 이신 아버지 그리고 동네 친구며 오빠 언니들이.....
 철없는 가슴에 그 모습이 부끄러워
 먼 길을 돌아 다녀야만 했던 내 어린 날의 초상
 그 길을 지날 수밖에 없을 땐
 입에서 혀를 내밀어 내가 아닌 것처럼 도망치듯 그 길을 달렸었는데
 옛장수 딸이란 놀림이 싫어서 말이다

아버지 당신을 기억하면 철없던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어찌 그런 딸을 못 알아 보셨겠어요
 기쁨이 되어 드리지 못하는 딸아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셨을 아버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같이 비가 내리면 어김없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지게는 비에 흠뻑젖고
 비닐쪽 하나들고 마중 나가 처벅 처벅 오시는 당신 가슴에
 아버지! 하며 메달리던 철없던 딸아이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당신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고...
 언제까지 잊지 않고 나의 가슴에
 나의 생각 속에 당신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의 사랑 입니다.



◀그땐 그랬지 ▶ 박대통령배 축구대회

1970년대, 변변한 국제대회 하나 치루지 못하고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배, 태국의 킹스컵에 익숙
 했던 우리에게 박대통령배 축구대회는 우리가
 치룬 국제규모의 큰 스포츠 대회였습니다. 그때
 버마(미얀마)가 우리와 우승을 다름 만큼 참 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때 대회 명칭을 박스컵
 (Park's Cup)으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회택, 김진국, 이차만, 박이천, 정규풍 이런
 선수들의 이름이 아직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 | | |
|--|---|--|
|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갈보리교회 (마7:8) Calvary Presbyterian Church |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녀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
| 제8권 35호 |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 2006년 9월 3일 |
|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 | |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앵콜곡을 찬송으로 부르니 전도가 쉽게 되는것 같아요”
 심수봉



“콘서트에서 많은 사람이 ‘과연 심수봉이 앙코르로 어떤 노래를 부를까’ 라면서 잔뜩 기대하고 있을 때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을 부르는 거예요. 야유가 쏟아지는 등 반응들이 많이 엇갈려요. 그런데 전 아주 뿌듯하고 좋아요.”

심수봉은 스물셋 꽃다운 나이에 ‘그때 그 사람’ 을 부르며 1978년 화려하게 데뷔했다. 그러나 이듬해 10 26 정치현장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5년간 방송 출연 금지 조치를 당했다.

한창 열정적으로 무대에 서야 할 나이에 그녀는 족쇄에 묶여버렸다. 벗어날 방법을 찾던 그녀는 사주와 점술에 빠졌다.

“그때 오래 된 한 친구를 만나 우연히 상담을 하게 됐지요. 그 친구는 제게 ‘너같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 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1985년 그녀는 충현교회에 등록하고 믿음생활을 시작했다. 3일 동안 눈물만 흘렸다는 그녀. “마치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찾은 심정이었지요. 세상에서 겪은 외로움 서로움 고통들이 모두 잊힌 눈물이었을 거예요. 절대자 앞에 다 내려놓으니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 없었어요.”

이후 첫 남편과 광림교회에서 결혼한 그녀는 집사 직분도 받았다. 그러나 곧 이혼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다가 1993년 재혼하면서 그녀는 교회와 멀어지게 됐다. 기독교에 대한 남편의 거부감이 심했던 것. 그러나 ‘아이들을 키우는 데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는 것을 깨닫고 심씨는 남편을 이끌고 6년전부터 다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제가 가수이다보니 실업조 액수가 클 때가 많잖아요.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헌금 봉투에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고요. 순간 서운한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바로 회개했지요. 제가 바로 철두철미하게 계산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잖아요.”

“앙코르 때 제가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바로 나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아 광명을 얻었거든요. 조만간 CCM 앨범을 들고 인사 드릴게요.”

심씨는 험난했던 지난 세월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면서 전화위복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고 고백했다.

◀말씀따라 행하기▶

예배드릴 때
 모자는 벗으면서도
 마음을 수그러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된다

◀인품따라 행하기▶

결혼 생활에 있어
 황금률은
 "참고 또 참아라"이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 | | |
|---------------------------------------|---|--------------------|
| 영 광 송 Glory | Calvary | 다 갈 이 |
| 참 회와 소 원 을 위 한 기 도 Confession Pray | | |
| 용 서 의 선 언 Proclaim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 인 도 자 |
| * 찬 송 Hymn | 44장 | 다 갈 이 |
| *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 사 도 신 경 | |
| | 본 명 | 성 찬 식 |
| | 본 잔 | 본 명 위 원 본 잔 위 원 |
| 찬 송 Hymn | 144장 | 다 갈 이 |
| 기 도 Pray | | 정 덕 수 장 로 |
|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 누가복음 15:8-10 | 인 도 자 |
| 성 가 대 찬 양 Choir | | 나 무 십 자 가 성 가 대 |
| 설 교 Sermon | 잊혀지지 않은 드라마 | 김 성 국 목 사 |
| 찬 송 Hymn | 336장 | 다 갈 이 |
|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 | 인 도 자 |
| 응 답 송 Response Song | '이 믿음 더욱 굳세라' | 다 갈 이 |
| 축 도 Benediction | | 김 성 국 목 사 |

“돌아가신 아버님의 생신을 맞아 오늘 하루 판매한 모든 금액을 아버님의 이름 ***로 성전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성전건축헌금으로 드린 교우의 봉투에 담긴 글-

| | |
|-----------------------|---------------|
|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 2,445 | 총액: \$134,365 |
|-----------------------|---------------|

◆9월 예배위원◆

◆9월의 교회력◆

| 일자 | 기도 | 차량 | 안내 |
|----|-----|-----|-----------------|
| 27 | 장현중 | 김교섭 | 본 당: 노은숙 |
| 3 | 정덕수 | 박일영 | 운주야 |
| 10 | 최재학 | 이광희 | 현 관: 장현중 |
| 17 | 고성일 | 장현중 | 정덕수 |
| 24 | 권용일 | 정덕수 | 새교우: 이광희 장유진 |

| 주 일 | 예배와 모임 |
|-----|---------------------------------------|
| 3 | 성찬주일 월초새벽기도회(1) 남선교회(1) 구역예배(8) |
| 10 |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2) |
| 17 | |
| 24 | 이삭줍기주일 학생부수련회(29-1) |

| | |
|---|--|
| 『교회 생활』 2006년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 『교회 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아동, 학생: 12:30분 | 수요예배: 7:30 pm |
| 새벽기도회: 금 5:55 | 청년부: 토 오후 5시 |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은 못하고 살지만 자식들 말 한마디에 모든 수고와 서러움을 씻어 버리며 사는 이민 땅의 아버지! 오늘만큼은 “아버지, 그리고 여보! 당신은 우리의 왕” 이란 환대로 보답해 드리세요.

1. 교우소식. <등록> 장기숙 집사(4여선교, 5구역), 순영, 성용(학생부) ☎579-7736. 48 Stanhope Rd. Ellerslie
2. 오늘 성찬주일로 드립니다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살아가면서 자주 잊고 지냈지만 오늘 내 몸 안으로 들어오신 주님의 상처를 통해 다시금 기억합니다.
3. 정기구역예배
*금주는 정기구역예배주간입니다. 구역식구끼리 서로 위로받고 격려 나누는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4. “우리 교회 우리 손으로, 우리 교회 우리 자녀에게”
*아무때고 문 밀고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눈치 안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면 뒤에서 바라다만 봐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5. 반주자 임명. 장혜선 성도 ☎524-3625
6. 수요예배
*금주수요예배는 바누아투 선교를 다녀온 박성천 목사님의 “바누아투”의 복음상황을 통해 복음전파에 대한 마음을 가져 보겠습니다.

◀착한 시인들▶ 아버지

조현정

아버지와 오랜만에 같은 잠자리에 누웠다
조그맣게 코고는 소리
벌써 잠이 드신 아버지
많이 피곤하셨나보다.
작지만 야문 손 잡아보고
주름진 얼굴 살며시 바라보다
어느새 그렇그렇 멍하는 눈을
아버지도 사람이셨구나.
상황당 나무처럼 마을어귀 장승처럼
백 년이 한결같은 줄로만 알았는데
춤고 배고프고 아프고 슬픈
춤고 배고프고 아프고 슬픈
아버지도 사람이셨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내 할아버지가 가신 길을
아버지도 가시겠지.

